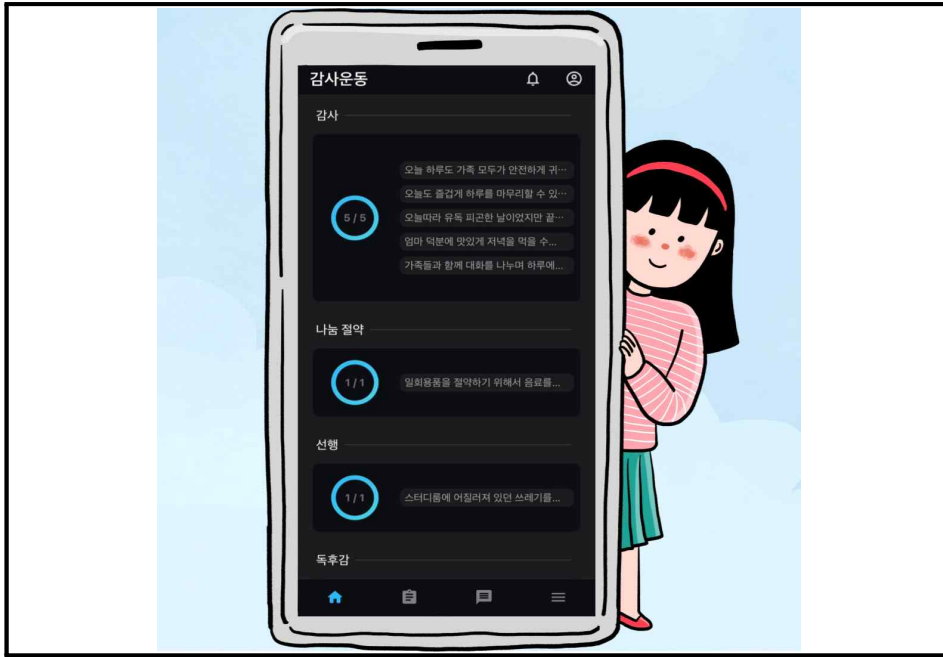


제목 감사하는 하루의 시작!



평소에도 틈만 나면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던 나는 그날도 공지사항을 둘러보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에게 눈에 띄었던 것은 '하림감사운동'이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실 처음에는 '운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단순했다. 그저 하루에 내가 감사했던 일 5가지와 하루 동안 내가 했던 선행 1가지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날 나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 바로 신청했다. 잠시 잊고 있을 때쯤 감사운동 멘토가 연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를 포함한 멘티 5명과 멘토 1명이 함께 진행하는 감사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첫 날, 하루 동안 감사한 것에 대해 적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내가 오늘 어떤 일에 감사를 느꼈는지에 대해 5가지나 적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난 공강시간을 그저 감사에 대해 생각만 하다 수업을 들으러 가곤 했다. 집에 들어와서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난 결국 엄마에게 여쭙보았다. 엄마는 내 질문에 고민 없이 바로 대답해주셨다. "네가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집에 안전하게 왔다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니?" 엄마의 그 말은 그동안 고민하던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그동안 상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등의 큰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였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것,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조차 모두 감사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하루 속에는 감사한 일들로 넘쳐났다. 그래서 요즘은 공강시간이 될 때면 노트에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적어나간다. 내가 어떤 감사한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 적다보면 하루가 소중해지고 내일은 어떤 감사가 있을지 기대된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로 세상을 좀 더 밝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 이번에 감사운동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쓴 주제는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었는데, 글을 쓰면서 익숙함에 가려져 있던 가족의 소중함과 그들은 나에게 정말 감사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이처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소한 일들과 익숙함에 가려져 있던 소중한 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준 이 프로그램에 나는 참 감사하다. 다음 학기에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멘티가 아닌 멘토로서 감사운동을 진행하고 싶다. 오늘도 공강시간에 지금까지 감사한 일들을 쭉 적어나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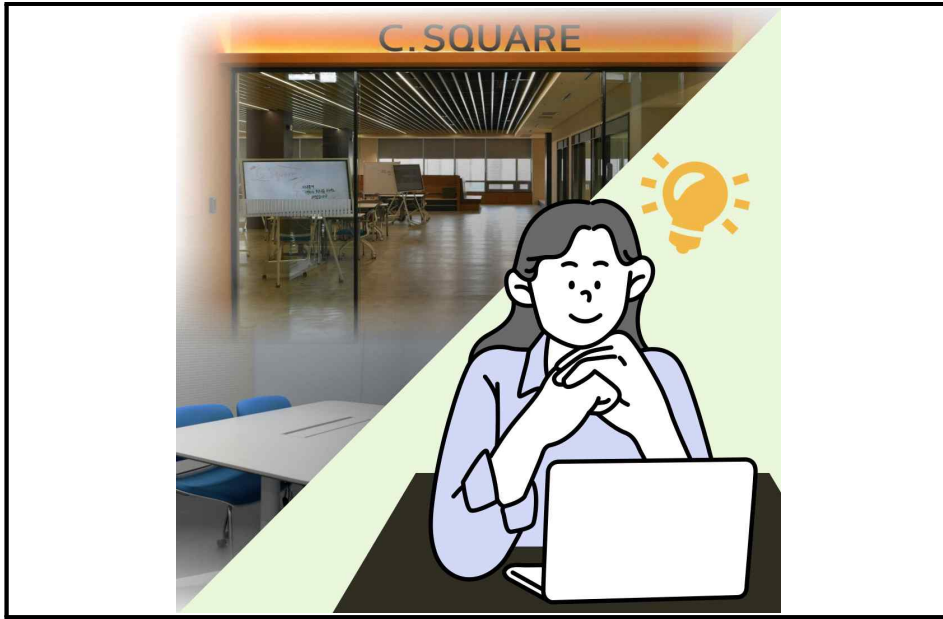
제목 글쓰기, 이젠 어렵지 않아!



나는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공강시간이 되면 종종 나만이 볼 수 있는 곳에 짧은 글을 쓰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글을 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혼자서 하다 보니 의지력도 떨어져서 몇 번 쓰다가 포기하는 것을 반복했다. 그런 나에게 필요한 건 글쓰기 모임처럼 누군가와 함께 글을 써보는 활동이었다. 혹시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에 발견한 건 "Writing Challenge 3주 프로젝트"였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면 학생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글을 쓰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원하고 찾고자 했던 활동과 딱 맞았기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신기하게도 밴드라는 앱을 통해서 서로의 글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었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서 버

벅거리기도 했지만, 몇 번 사용하다보니 익숙해져서 오히려 더 편했다. 아침마다 키워드가 주워지다 보니 내 하루 일과의 시작은 핸드폰에 떠 있는 밴드 알람을 보는 것이었다. 오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내용을 써볼지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공강시간이 되자마자 스터디카페로 달려가 키워드와 관련된 글을 조금씩 써내려간다. 물론 한 번에 다 쓰진 못한다. 글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글을 완성해나간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게 써지지 않아서 공강시간에도 다 쓰지 못해 결국 집에 가서 쓰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글을 쓰는 감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강시간 동안에 글을 완성할 수 있었다. 글을 다 쓰고 나서면 어찌나 뿌듯하던지... 힘들었던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글을 쓰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내 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준다. 댓글들을 다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작가가 된 듯한 느낌도 든다. 그래서인지 댓글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나만의 글을 쓰고 댓글을 읽어도 공강시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남은 시간도 알차게 활용하기 싶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고 댓글을 단다. 읽다보니 느껴지는 건 똑같은 키워드로도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글들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글쓰기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이 프로젝트가 정말 마음에 들고 재밌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는 것이 정말 좋다. 이 프로젝트는 매번 글에 어려움을 느껴 잘 쓰지 못했던 나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더 나아가서 15개의 키워드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내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지금 이 일기를 쓰는 시점에서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난 다음 학기에도 또 하고 싶다. 아니, 할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고 싶지만 망설이는 친구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제목 이곳이면 공강시간도 문제없어!



우리 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공강시간을 보낼 곳이 많다는 것이다. 스터디룸이나 스터디카페, 도서관 내 공간까지 다양한 곳이 있어 공강시간도 걱정이 없다. 나는 주로 수업을 듣는 건물과 가까운 스터디룸이나 카페로 가는 편이다. 요즘은 복수전공을 때문에 사회경영관에서 듣는 수업이 많다보니 주로 있는 곳은 사회경영 1관 1층에 위치한 스터디카페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공간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끝내고 싶었지만, 사회경영관 근처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곤 했었다. 그러다 정말로 우연히 사회경영 1관에 있는 카페를 갔다가 발견하게 되었다. 카페입구 바로 맞은편에 스터디카페로 가는 문이 있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따뜻한 공기와 정갈하게 놓인 있는 책상과 의자들

이 나를 맞이해주었다. 더 좋았던 것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것도 따로 있어서 팀 프로젝트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공강시간만 되면 바로 스터디카페로 와서 노트북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교 공모전이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수업을 듣는 건물과도 가까워서 오래 걸어갈 필요가 없어서 나에게는 너무도 편리하고 좋은 공간이었다. 또한 일반 스터디카페처럼 조용한 분위기여서 그런지 집중도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왠지 나만이 알고 싶을 만큼 소중한 곳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가끔은 조용한 공간보단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으며, 마음 놓고 영상을 보아도 되는 곳을 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내가 가는 곳은 도서관 4층에 있는 C.Square라는 곳이다. 2023년 1학기부터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생긴 이 곳은 조용히 해야 하는 일반 도서관의 개념과는 달랐다. 하나의 창의공간으로서 학생들이 마음껏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 내의 아주 조용한 다른 공간들과는 달리 이곳만은 유일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자유롭게 회의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종종 말을 하면서 해야 공부가 더 잘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나에게 정말 딱 맞는 공간이다. 평소에는 사회경영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을 때 C.Square로 가면 기분이 환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 또한 동영상 촬영 및 편집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Square 내에 따로 마련된 스터디 공간에서는 화이트보드도 있어서 멘토링이나 과제, 팀프로젝트를 하기에 정말 적합하다. 다만 예약제라서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부터 바로 해야 한다는 수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학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공간이다. 앞서 말한 이 두 곳은 나의 2학기 공강시간을 위한 이용공간이 되었고, 남은 시간까지도 나는 계속 이용할 것이다. 이런 공간들 덕분에 내 공강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나에게 고마운 장소가 되었다.